'지도'로 읽어보는 문학과 역사

문학의 터전 · 분쟁지역 · 역사적 싸움터로 안내

작은 글자가 촘촘히 박혀 있는 책으로 영상세대의 호감을 얻기는 어렵다. 일반 교양서는 될수록 활자를 키우고 사진과 그림을 넣어 편집을 시원스럽게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지도' 역시 시각 본위의 편집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아예 책 이름에까지 지도를 들이민 책들도 나왔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엮은 《한국문학지도》(계몽사, 전2권)는 '문학의 해' 기념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책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학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한국문학사에 굵은 획을 그은 작가 1천여명의 고향, 그들이 쓴 작품의 배경지역, 그리고 작가와 작품을 기리는 기념관 · 기념비가 서 있는 사적지를 수록했다. 작가와 작품의 고향 및 문학 사적지는 행정구역별 지도에 표시돼 있다. 특정한 지역은 약도를 통해 위치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다.

홍기삼 교수(동국대 국문과)를 비롯한 10명의 심의위원이 선정한 1천여명의 문인들은 최치원 · 이규보 같은 옛문장가에서부터 김남일 · 박상우 · 곽재구 같은 현역작가까지 망라했다. 필자는 강동엽 교수(강원대 국문과) 외 57명의 문인들이 맡았다.

상권은 서울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을, 하권은 광주 · 전남 · 전북 · 부산 · 대구 · 경남 · 경북 · 제주를 담았다. 서울 성북구에는 '동네명소'를 소개하는 녹색 바탕의 안내표지가 있다. 삼청터널을 지나 성북 2동 사무소 약간 못 미쳐 '심우장'과 이태준의 생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서 있다.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만년을 보낸 거처이고, 단편소설의 대가 상허 이태준도 월북 직전까지 성북동에서 살았다. 성북동에 거주했던 문인의 자취를 보존하려는 자치단체의 성의는 높이 사줄 만하지만 이태준의 생가를 가리키는 표지의 이름이 '이태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옥에티.

하권의 첫머리는 광주광역시의 문학지도가 장식한다. 무등산 기슭에 세워진 김삿갓과 다형 김현승의 시비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윽고 김남주 시인의 영혼이 묻혀 있는 망월동 묘역이 발길을 재촉한다. "온몸을 불 태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시인의 영혼, 여기에 잠들다." 김남주 시인의 묘비명이다.

온전한 한국문학지도의 작성은 통일 이후의 역사(役事)라손치더라도 일부 지역을 소외시킨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문학지도》에는 인천이 빠져 있다. 인천은 현덕(소설) · 배인철(시) · 함세덕(희곡) · 김동석(평론) 등 쟁쟁한 문인들을 배출했고, 동시대 문학인들의 역량도 만만찮다. 문학비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아니한 자치단체의 무성의도 한 원인이겠으나, 서울의 들러리로 맴도는 인천의 위상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자작나무에서 펴낸 《민족분쟁지도》(아사이 노부오 지음)와 《종교분쟁지도》(이시카와 준이치 지음)는 냉전 종식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민족과 종교분쟁의 양상을 해당 지역의 지도를 곁들여 해설한 책이다. 일본의 월간지 《포어사이트》에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었다.

《민족분쟁지도》는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출발점으로 언어 · 종교 · 혈연을 통해 엮이는 민족을 둘러싼 분쟁을 추적했다. 유고 내전, 팔레스타인 문제, 티벳의 독립 가능성 등 외신란의 단골 손님들이 등장한다. 《종교분쟁지도》는 지역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종교 갈등인 점에 주목한 책. 《민족분쟁지도》와 겹치는 내용이 더러 보인다. '이란성 쌍둥이'인 두권의 책은 이념 몰락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민족과 종교 갈등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노병천씨의 《세계격전지 현장답사기》(연경문화사)의 제목에는 '지도'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책 속에는 많은 지도가 그려져 있다. 세계전쟁사에서 중요한 전투를 살펴보는데 전황지도를 빼놓고서는 상황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장 흥미롭고 극적인 일곱개 격전지를 둘러보고 있다. 〈마라톤 전투〉 〈칸네 전투〉 〈명량해전〉 〈워터루 전투〉 〈탄넨베르크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6일 전쟁〉의 전장 답사를 통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 최성일 기자

IBM분판·윈도우용 아래아한글 전문출력

24시간출력

••••••• 호글프로96, 호글3.0B, 도스버전 •••••••

• 4도분판 코렐, 포토샵, pagemaker
• 단 도 호글96 · 3.0B · 도스, 워드
• 프린트 호글, 한글워드, 훈민정음
• PC로 입력한 data 편집출력
• 한자 및 고어 100% 지원
• 국내의 모든 서체보유

삼화전산 천리안 하이텔 sawh
전화263-2651~3 모뎀277-8097,8

이런분을 기다립니다

• 윈도우용 호글의 출력이 않된다고 알고계시는 분
• 호글을 이용한 조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 호글이 불편하게 생각 되거나 기능에 자신이 없는 분
• 호글을 이용해 조판을 시작하려는 분
• 출력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분

미술가를 만나러 가자

영국 · 프랑스의 미술가 시리즈 출간

세계 유명 미술가의 작품과 생애를 소재로 한 그림책이 여러 권 선보였다. 길벗어린이가 펴내고 있는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와 웅진출판의 〈세계의 미술가 기행〉 시리즈가 대표격. 이들 시리즈는 세계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을 가까이 보고 느낌으로써 어린이들의 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동화나 다른 책처럼 읽거나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놀이와 실습을 겸해 교육효과를 높인 것은 이들 시리즈의 공통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웅진출판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낸 〈세계의 미술가 기행 시리즈〉는 영국의 아동물 출판사 알라딘 북스의 〈페이머스 아티스트〉 시리즈를 번역 출간한 것. 고전미술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인상파 화가 가운데 세잔, 모네, 반 고흐, 미술의 신경향을 주도한 마티스, 피카소, 미로 등 내로라 하는 미술가들이 모여 있다.

평전 형식의 생애와 대표적인 작품 소개가 근간을 이루는 이 시리즈는 여러가지 장치를 이용, 독자의 흥미를 놓치지 않고 있다. 작품의 일부분을 확대해 화가의 작업과정과 기법을 설명한 점이나 소개된 작품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사람과 그림 크기를 표시한 작은 상자, 시기별로 화가가 살았던 집 또는 환경을 책 위쪽에 그려넣어 화가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특히, 작가의 화풍이 달라지는 시기마다 특징적인 기법을 따로 설명하고 실습해 보도록 유도한 것은 교육 효과를 발휘한다. 책 말미에 화가의 생애를 간추린 연대표, 간추린 미술역사, 각 화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일람할 수 있게 했다. 책에 나오는 미술 전문용어들을 10개 안팎으로 간추려 설명을 붙인 것이나 작품 목록, 주제어로 찾아보기 등을 마련한 것은 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다.

길벗어린이에서 펴내고 있는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 〈세계의 미술가 기행 시리즈〉와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말로 작품을 설명하기보다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 작품을 요모조모 뜯어 보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한 점이다.

예술가의 생애를 설명한 짧은 글과 설명그림 연결하기, 그림의 일부를 윤곽이나 부분만 떼어내 전체 그림과 맞추기, 각 화가가 살았던 시기의 사건들을 그림판에서 말놀이로 알 수 있도록 한 점, 똑같은 그림을 나란히 그려놓고 다른 점 찾기 등 '읽는' 책이 아닌 '놀이하는' 책을 시도했다.

샤갈, 다 빈치, 피카소, 조토 등 네 권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주축이 되어 만든 쉐이유 출판사의 시리즈물로 필름을 그대로 가져와 만들었다. 길벗어린이는 먼저 내놓은 서양편 외에 동양편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작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으로 그림감상책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출판사들은 "어린이 예능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런 책을 만드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는 외국의 경우를 부러워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판권을 갖고 있는 이 두 시리즈물은 실제로 각국의 국립미술관과 미술 전문도서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 제작됐기 때문이다.

좋은 그림책이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를 느끼고 이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 화가의 그림을 읽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시리즈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 이현주 기자

[디자인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모두 뛰어난 책,
내용은 훌륭하나 형식이 뒤따르지 못한 책,
형식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보잘것없는 책,
내용과 형식이 모두 형편없는 책 —.

다름기획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을 적절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
바로 다름기획의 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름기획, 뭔가 다른 기획입니다

[문장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이 막힌 문장은 생명 없는 책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원고,
어쩐지 껄끄러워 잘 읽히지 않는 번역원고,
몇 군데 숨길만 틔워 주면 좋은 책이 될 원고,

다름기획은 이런 원고들의 숨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다운 리라이팅으로 쉽표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드립니다.

DR 다름기획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어학교재 · 학습지 디자인 / 전문교열 · 교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TEL:(02)707-0572 FAX:(02)707-0573